

## ‘하나됨의 장’ 대동제 개막

### 22일 전야제 필두로 경희가족 한마당등 다양한 행사

올바른 대학문화의 형성과 경희인의 하나됨을 위한 대동제가 양캠퍼스 총학생회주최로 오는 22일부터 개막된다.

이번 대동제는 22일 전야제를 필두로 경희가족한마당, 영산줄다리기 등으로 진행되며, 단대 학생회 및 각 동아리에서 공연, 학

술제, 전시회등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아래 일정보 참조>

백승만(국문·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기획부장은 이번 대동제에 대해 “그간의 보여주시는 행사를 지니고 전 통적인 민족문화에 대한 학우대중의 염원과 조

<대동제 행사일정>

| 날짜      | 세                                                                       | 원                                                                               |
|---------|-------------------------------------------------------------------------|---------------------------------------------------------------------------------|
| 22일 (화) | ◇전야제 (3시)<br>·길놀이, 만장대회<br>·차전놀이<br>·통일노래 한마당                           | ◇전야제<br>·5시반 선포식, 포졸발대식<br>·6시 풍물 및 민요공연<br>·6시반 정대춘 초청공연<br>·7시반 ‘강이 되어간다’ 해방군 |
| 23일 (수) | ◇해오름의 날<br>·12시반 문리대 과별 노래왕 선발대회<br>·2시 여성학교 종강식<br>·4시반 고향사랑의 밤 (동원주최) | ◇동원제<br>·2시 ‘말뼉’ 마당극<br>·2시반 ‘비랑개비’ 공연<br>·3시반 응원단 시범                           |
| 24일 (목) | ◇어우름의 날<br>·2시 함께 노래달리기 (단체전은 가장정렬과 같이)<br>·4시 과별 노래 올림대회               | ◇동원제<br>·통일노래 한마당<br>·1시반 외대 문화 공연<br>·빛사상 영화제<br>·노학연대의 밤                      |
| 25일 (금) | ◇경희가족 한마당 (노천극장)<br>·2시 개회식, 태권도 및 기계체조 시범<br>·6시 영산줄다리기 대동놀이           |                                                                                 |

### 수원동원 춘계 농촌활동 실시 오는 1일부터 평택군 포승면에서

수원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춘계농촌활동’ 참가신청을 오늘부터 30일까지

### 음대 개학과 정기 공연 23일 중앙국립극장서

음악대학 작곡과, 기악과, 경희 챔버 오케스트라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오후 7시30분 잠충동에 위치한 중앙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각각 정기공연을 갖는다.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작곡과=오는 23일, 춘계 정기 작곡 발표회, 김동규교수의 10명의 교수, 학생참가

▲기악과=오는 24일, 피아노 연주회, 임은정(4)의 7명의 학생 참가

▲경희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오는 25일 김명목교수의 지휘로 백명정(음대 기악과 3년, 바이올린)의 65명의 학생 단원들 참가

학과, 동아리별로 실시된다.

수원캠퍼스는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축제기간중 상거대행 위등락을 지난 17일로 마감했으며, 주점은 산업대학관과 사회과학대학관앞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동원 ‘고향사랑의 밤’

동아리연합회는 ‘고향사랑의 밤’을 오는 23일 오후8시부터 실시한다.

‘민속연구회’ 마당극공연을 시작으로 각 동아리별 악식행사등이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산악부 학생회관 하강시범, 소리빛 수화공연, 학생회관 관리·정소지 직원 장기지랑, 노래를 공연등을 하계되며, 전체 동아리의 참여와 동아리인의 통일의를 북돋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24일 외대문화제 개최

외국어대학 학생회는 오는 24일 4시 공대교육관 시청각실에서 ‘외대 문화제’를 개최한다.

대동제의 일부로 실시하는 이번 문화제 행사는 외대인들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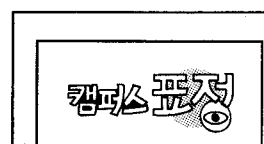
또한 식순은 풍물놀이패, 원어 노래, 사냥춤, 민중가요제, 그룹 사운드공연등으로 진행된다.

## 수원 단과대학관 고유명 공모

### 각 단대학생회 주최로 ‘상징물 조형도’도 함께

수원캠퍼스 6개단과대학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과대학관 고유이름과 각 단대의 상징물조형도를 공모한다.

공대·외대의 경우 4월말부터 지난 17일까지 단과대학관 고유이름과 상징물조형도 모집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의 호응이 거의 없어 오는 23일까지 연장하여 모집하며, 체과대·산대·자연대로 모집하였으나 호응도의 부족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중이다.



자옥한 최루탄기 뒤의 적들의 모습은 SY44, 지랄탄... 우리가 가진 무기는 화염병과 돌만은 아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5월의 분노엔 변혁의 함성이, 민중의 고통한 신음이, 진실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다.

<이상원記者>

가슴속 응어리진 5월의 분노가



## 광주항쟁의미 계승과 반민자당 투쟁 선포 5·18 기념 주간 맞아 결의대회 연이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민자당 해체와 노태우 처단을 위한 자주정의 광주항쟁 10주기계승 투쟁기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집회후 김소성(철학·2) 철학과 사회부장인 오른쪽 눈에 최루탄 파편을 맞아 의료원에 입원중이다.

한편 지난 18일 크라운관에서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광주항쟁 10주기 기념식 및 민자당투쟁’을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심민성(무역·4) 부총학생회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광주항쟁의 원형 노태우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배후조종자 미국을 몰아내며 장기집권 영구분단유무 민자당을 분쇄하는 투쟁을 원천적으로 전거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중합쟁 10주기 계승식 및 제4기 전대협참가결의대회’가 열렸다.

문광식(건축·4) 수원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은 전대협 발족식에 대해 “민자당을 조작한 미국과 노태우일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집결하여 전국민적 투쟁을 벌여가 독재 국면을 민주화 국면으로 역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총동창회 대의원 총회 지난 19일, 시청각실에서

본교 총동창회는 지난 19일 오후4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전년도에 결산 보고 및 90년 예산, 사업, 심의와 새임원진 구성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1부 총회와 2부 반찬(체육대학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현 이병희(정·7회 졸업)회장이 재추대 됐다.

## 본교 노동조합 쟁의 발생 신고

### 전체 조합원 투표로 파업여부 추후 결정

본교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학교 당국과의 ‘제4차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8일 영등포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상정된 ‘쟁의발생신고’안에 대해 1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노동조합은 27일까지의 냉각기간중 합법적 쟁의활동과 협상을 계속하며, 전체조합원 투표로 파업여부를 확정한다.

한편 지난 17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정기대의원대회’는 전년도 사업·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수인등이 있었다.

### 시 문예 현상 공모 오늘 마감

공대·외대의 경우 4월말부터 지난 17일까지 단과대학관 고유이름과 상징물조형도 모집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의 호응이 거의 없어 오는 23일까지 연장하여 모집하며, 체과대·산대·자연대로 모집하였으나 호응도의 부족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중이다.

### 학생들의 호응, 현판·상징물 건립의 필요조건

▲상징물이란 그 조직의 특성과 취지를 반영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징물과 더불어 애칭, 고유명등도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원캠퍼스의 경우에는 각 단대별 상징물건립의 고유명에 있어서도 건물완공순서에 따라 1호관, 2호관 등 나열식으로 붙여왔다.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구성원들에게 그 조직의 강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킬수없었으며 나아가 학교에 대한 애착심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캠퍼스 6개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대별로 단과대학관 고유명과 상징물 조형도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호

응도 부족으로 인하여 단과대학관 고유명과 상징물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일정이 지체부진해지고 있다. 공대의 경우 상급까지 내걸고 4월말부터 지난 17일까지 모집하였지만 들어온 것은 단과대학관 고유명 3개뿐이며 상징물 조형도는 아예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다. 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대는 낙서판 형식으로 하여 약간의 호응도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나 같은방식을 이어온 채대의 경우는 반대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각단대 학생회는 고유명과 상징물 조형도 모집을 이번주까지 연장해서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공대는 벌써 23일까지로

연기하고 모집중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데에는 학생들의 홍보부족도 그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고집적인 무관심에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상징물과 고유이름은 학교를 위해서, 또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물과 각 건물의 고유명이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과 자랑거리나 특기가 없다는 말과 같다. 수원캠퍼스에 상징물이 세워지고 더 이상 1, 2호관이라는 나열식 이름을 쓰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의미있는 이름을 갖기 위해 단과대학 학생들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학생들의 호응이 필요한때이다.

# 21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도전하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대륙 일본 옆에 있습니까?  
통일유럽을 향해 가는 유럽대륙 끝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의 힘의 대륙 북아메리카 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21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21세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21세기를 우리 손으로 창조합니다.

미원그룹은 생명화학산업, 미래식품산업, 고도의약산업, 첨단화학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에 한국기술 미원태크를 우뚝 세우는 한국에 세계기업 미원을 우뚝 세우는 우리의 21세기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식품부문 정밀화학부문 무역부문 금융부문 건설부문 축산·비료부문 석유화학부문

미원 주식 미원

(주)미원, 미원식품(주), 한남화학(주), 미원중기(주), 미원통상(주), (주)베스트푸드미원, 한일계장공업(주), 미원수산(주), 내소날함성(주), (주)화영, 대한투자금융(주), (주)제일농장, P.T. 미원인도네시아, 한남개발(주), 미원음료(주)